

2개대회 연속 2관왕

광주출신 최준상



## 스승 서정균 제치고 '죄송스런 금'

### 마장마술 개인전서 사제대결

#### "올림픽서 메달 따는 게 목표"

2002 부산 아시아게임에서도 단체,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했던 광주출신 최준상(28·삼성전자 승마단)이 2개 대회 연속 2관왕이 됐다.

최준상은 5일(이하 한국시간) 2006 도하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개인전 결선에서 절정의 연기력을 뽐내며 71.550%를 획득, 금메달을 확정지었다.

이날 최준상의 금메달 도전은 사제간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더욱 흥미를 끌었다.

전날 한 팀으로 단체전 금메달을 일궜던 서정균(44)과 최준상은 이번엔 서로를 넘어서야 할 경쟁자로서 마장에 들어섰다.

두 사람은 소속팀은 다르지만 선·후배이자 한때 사제간이었던 각별한 사이다. 최준상은 광주교대부속초교 3학년 때 광주승마클럽에서 승마에 입문했고, 광주무진중학교 1학년 때 영국

유학길에 나섰으며 고려대 재학 중 서정균의 개인 저도를 받았다.

최준상은 당시 양지승마단을 운영하고 있던 서정균에게서 가르침을 받으며 기량은 쑥쑥 늘었다.

하지만 제자이자 후배 최준상은 서정균의 한국 아시안게임 역사에 길이 남을 새 기록을 기록했다.

이날 결선에 오른 12명 중 최준상은 11번째, 그리고 서정균이 마지막으로 연기를 펼쳤다.

결국 최준상은 결선에서 71.550%의 환상적 연기로 12차전 및 결선 합계 68.602%로 1위를 차지, 단체전에 이어 2관왕에 올랐다. 반면 개인전 1차 예선을 겸한 단체전에서 1위(66.444%)를 차지했던 서정균은 65.550%의 부진한 연기로 4위에 머물렀다.

전날 단체전 금메달로 양궁 양창호가 갖고 있는 한

국 선수 아시안게임 최다 금메달 기록(6개)과 타이를 이룬 서정균의 최다 금메달 기록은 물거품이 됐다.

알궂은 만남은 4년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도 이루어졌다.

나란히 단체전 금메달을 이끈 둘은 개인전에서 정상을 놓고 격돌해 최준상이 1위, 서정균이 2위를 차지했다.

당시 서정균이 개인전 금메달을 땄다면 그는 지금은 7개의 금메달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서정균은 경기를 마친 뒤 먼저 연기를 끝내고 기다리고 있던 최준상과 환한 웃음을 나누고 포옹하며 제자의 2회 연속 2관왕 등극을 축하했다.

이날 관중석에서 아들의 경기를 지켜본 어머니 문진수(57)씨도 최준상이 연기를 마친 뒤 금메달을 확신한 듯 손을 번쩍 들어올리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잠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최준상은 시상식 후 향후 목표를 묻는 질문에 "이제 막 대회를 끝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더 큰 무대로 나가고 싶다. 올림픽에 나가는 것은 꿈"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최준상은? 광주교대부속→무진중→영국 유학→고려대→삼성전자 승마단

### 수영 2관왕 박태환

## 다음 목표는

# 1,500m

'마린보이' 박태환(17·경기고)이 주종목인 자유형 1,500m 금메달을 끝으로 제15회 도하 아시안게임을 마무리한다.

박태환은 8일 카타르 도하 하마드 아쿠아틱센터에서 펼쳐지는 대회 경영 마지막 날 남자 자유형 1,500m 결선에서 금빛 물살을 헤친다.

박태환이 이날 금메달을 획득, 3관왕을 차지하면 1982년 뉴델리 대회 최유희 이후 한국 수영 사상 두 번째 3관왕이 탄생하는 것이다.

자유형 1,500m는 육상으로 따지면 마라톤이나 10,000m 달리기와 비교할 수 있는 장거리 종목.

하루에 예선과 결선까지 두 번이나 경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형 400m나 200m처럼 예선을 거쳐 결선을 치르는 것과는 진행 방식이 다르다.

참가선수 15명 가운데 박태환을 비롯해 사전에 제출한 보유 기록이 좋은 선수 8명은 현지시간으로 오후에 레이스를 펼치고 나머지 7명은 오전에 따로 경기를 치른다.

순위는 기록으로 매겨진다.

이번에도 박태환의 리이벌은 중국의 장린이다. 박태환은 기록에서는 장린에게 뒤져 있다.

박태환은 지난해 11월 마카오에서 열린 동아시안게임에서 15분00초27로 아시아신기록을 작성하며 우승한 장린에 0.05초 뒤진 15분00초32를 기록했다.

박태환은 이후 지난 4월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 쇼트코스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당시 장린을 3위로 밀어냈지만 아직까지 정규코스(50m)에서 만나지는 못했다.

지난 8월 캐나다에서 열린 범태평양 수영 대회에서 박태환이 우승할 때도 장린은 자유형 200m와 400m만 출전했을 뿐 1,500m에는 나오지 않았다.

박태환으로서는 이번이 정규코스에서 장린에게 설욕하며 아시아 최강자 자리를 굳힐 기회다. 자신감도 넘친다. 최근 장린과 다른 종목에서 붙어 모두 이겼기 때문이다.

박태환은 6일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따며 아시안게임 2관왕을 이룬 뒤 "체력에는 아직까지 문제 없다. 1,500m도 금메달을 예상하고 있다. 기대하시는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천식을 앓던 '악꼴' 소년 박태환이 한국 수영에서 24년만에 아시안 게임 3관왕의 위업을 달성하는 동시에 아시아 자유형 최강자로 우뚝 서는 순간이 기다려진다.

한편 박태환은 지난 4일 자유형 200m 첫 금메달을 시작으로 다음 날엔 남자 800m 계영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또 6일에는 남자 자유형 400m 결선에서 3분48초44에 끝인해 금메달을 따냈고 이어 출전한 400m 계영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여자볼링 첫 금빛 스트라이크

### 3인조 결승서 말레이시아 꺾고 우승

한국 여자 3인조 2006 도하아시안게임 볼링에서 애타게 기다리던 첫 금메달을 땄다.

남보라-김효미-황선율 조는 6일 카타르 볼링센터에서 열린 여자부 3인조 결승에서 6개임 합계 3천983점을 기록, 말레이시아(합계 3천973점)를 간신히 따돌리고 아시아 정상에 올랐다.

2002년 부산대회 여자부 5인조에서 1위를 했던 남보라와 김효미는 2회 연속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수영에선 박태환이 자유형 400m 결선에 출전, 3분48초44로 금메달을 추가했다.

최준상은 마장마술 개인전 결선에서 1위를 차지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유도의 김성범은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에서 무제한급이 정식종목이 된 이후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유도 남자 60kg급에 출전한 조남석(포항시청)과 여자 48kg급 김영란(25·인천동구청)도 은메달을 얻었다.

안마에서는 김수면(한국체대)과 북한의 조정철이 사이좋게 금메달을 나눠 기록했다.

이들은 남자 개인별 종목 안마 결승전에서 똑같이 15.375점을 받아 도미타 히로유키(일본)와 함께 공동 금메달 수상자가 됐다.

또 역도에선 이웅조가 94kg급 결승에서 합계 370kg를 들어올려 카자흐스탄의 일냐 일라(합계 397kg)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사격에서는 나윤경과 이해진, 이상순이 여자 50m 소총3자세 단체전 본선에서 1전 739점을 합쳐 중국(1천744점)에 이어 3위를 획득했다.

한국 조정도 남·녀 더블스컬에서 은메달 2개를 보탰다.

베드민턴은 남자단체전 결승에서 중국과 접전 끝에 2-3으로 패해 은메달에 만족했다.

구기 종목에서는 남자축구대표팀이 바레인을 1-0으로 학살해 꺾었다.

한편 한국은 이날 오후 8시 현재 금메달 5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4개를 추가해 중간 합계 금 14, 은 21, 동 36개로, 2위 일본(금 17, 은 20, 동 25)에 이어 3위를 유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 오늘의 주요 경기

#### ▲육상

△남자 20km 경기 결승(14시10분) △여자

20km 경기 결승(16시30분)

#### ▲배드민턴

△混合복식 준준결승 등(22시)

#### ▲농구

△남자 한국-요르단(23시15분)

#### ▲볼링

△남자 5인조전(15시) △여자 5인조전

(19시30분)

#### ▲복싱

△남자 51kg급 준준결승 등(20시)

#### ▲당구

△남자 스누커 단식(16시)

#### ▲승마

△종합마술 개인 및 단체(15시)

#### ▲축구

△여자 한국-북한(23시15분)

#### ▲핸드볼

△여자 한국-태국(16시), 남자 한국-A조

2위(22시)

#### ▲하키

△남자 한국-오만(18시)

#### ▲사격

△남자 25m 스탠다드권총 등(14시)

#### ▲정구

△남녀 복식 예선 및 8강전(15시)

#### ▲수영

△남자 50m 배영 결승 등(24시)

#### ▲탁구

△混合복식 결승 등(19시)

#### ▲태권도

△남자 54kg급 등 예선 및 결승(20시)